

##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윤리적 과제\*

조용훈 (한남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다문화 사회의 사회윤리 이슈들

1. 차별
2. 빈곤
3. 소외

### III. 다문화 사회의 가치 형성과 기독교

1. 공생 혹은 상생
2. 관용
3. 배려와 돌봄
4. 환대

### IV.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

1. 다문화 가정 사역과 지역교회
2. 다문화교육과 지역교회

### V. 결론

---

• ABSTRACT •

---

Korea rapidly moves to multicultural society: economic globalization brings a huge influx of foreign workers into Korea; a large number of foreign women immigrated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s growing now more than ever. These factors diversify the racial, cultural homogeneity of Korean society.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how the Korean church should respond to the social change in order to reconcile cultural differences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Korea has been a racially and culturally homogeneous society for a long time and has a strong tendency to refuse the heterogeneous cultures. For this reason, today's process to multicultural society accompanies social problems such as cultural conflict,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and also causes economic injustice to foreign workers.

The Korean Church have to take the ethical tasks to overcome socio-cultu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society, which would jeopardize and devalue the country: The church community should develop the value system to pursue unity in diversity an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differences. Furthermore, positive actions should be taken to care for the unprivileged, cultural minority and welcome the foreign residents. In addition, the church have to develop the multicultural education seeking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cultures represented by the 'salad bowl' model in opposition to the ideology of assimilati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encourages foreign immigrants to retain their own cultural identity and integrity, and can change the diverse cultural resources into the positive energy to enrich the societ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conflicts, poverty, discrimination, marginalization, value system, diversity, hospitalitabstract

---

## I. 서론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나라는 점점 더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노벨 평화상을 제정한 나라 노르웨이에서 다문화화를 반대하는 극우주의자에 의한 참극에서 보듯이 다문화 사회가 평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었다. 1987년 약 6천 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서부터 늘기 시작한 이주민 숫자는 1990년대 들어 국제결혼이 늘면서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sup>1)</sup> 국토연구원은 2050년이 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10명 중 한 명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sup>2)</sup> 이처럼 우리사회도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엿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이해된다. 하나는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다원문화 사회’이고, 다른 하나는 인종학적 구조와 변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다인종 사회’다.<sup>3)</sup> 이장형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논의가 다원문화 사회라는 관점보다는 다인종 사회 혹은 다민족 사회라는 관점에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다문화란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상황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up>4)</sup> 단일문화가 다른 문화를 배제하고 통제하는 경향인 반면에,

1) 2010년 9월 30일 현재 결혼이주민은 13만 9천여 명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이었다. 혼인귀화자 4만 7천여 명을 합하면,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인은 18만 6천 명에 이른다. 참고: 김희수, 『기독교 윤리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2011), 137.

2) 김광현, 「다문화 담론과 기독교 지식인의 책임」,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131.

3) 이장형, 「다문화 사회의 갈등분석과 통관문화적 언어소통 모델개발」,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43-44.

4) 박홍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한들 출판사, 2010) 186.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다름을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으로 파악한다. 다문화 관점은 모든 문화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그리고 다문화 관점은 문화충돌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문화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회로 본다.

역사를 잠시만 살펴보더라도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겼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구약성서의 ‘이방인’ 개념은 자신들만을 선민으로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차별적 개념이다.<sup>5)</sup> 초기 교회의 역사에도 유대파와 헬라파 교인들 간에 문화적, 교리적 갈등이 있었다. 근대의 서구 제국주의는 서구 이외 국가들의 문화를 민속(民俗)으로 폄하하고, 서구 이외 종교를 이교(異敎) 혹은 미신(迷信)으로 치부하였다.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억압과 차별의 역사는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에 잘 나타나 있다.<sup>6)</sup>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나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에도 이런 타문화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말미암는 차별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단일문화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5) 히브리어 ‘게르’(레 17:8, 10, 13 등)는 합법적 거주민으로 유대사회에 거주한지 3세대가 지나 유대 총회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종교 제의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노크리’(신 14:21)는 이스라엘 사람과는 다른 지위를 가진 외국인 거주자를 가리킨다. 김영진, “룻기와 다문화 사회”, 『성서마당』(2009/여름), 10-11.

6) 1519년 코르테스(Hernando Cortes) 중앙 멕시코에 도착했을 당시 인구가 약 2천 5백만 명에 달했는데, 1595년이 되면 그 가운데 95%가 줄어서 1백만 명만 남게 된다. 잉카의 본거지인 페루와 칠레에서는 1533년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도착하기 전 약 9백만 명의 주민이 있었으나 세기말에는 약 5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임스 스테바, 배석원 역, 『윤리학에 대한 3가지 도전』(서광사, 2001), 172-174.

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심한 편이다. 이는 낯설고 불편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다는 통계에서도 확인이 된다.<sup>7)</sup> 불확실성 회피란,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자신들과 다른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여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표시 한 것인데, 높을수록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억압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가 ‘207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 2004’ 자료를 보면, 한국의 세계화에 대한 태도나 외국문화의 수용정도가 10점 만점에 6.6점으로 52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42위에 머물렀다.<sup>8)</sup>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공포증(xenophobia)을 가지게 되며, 문화적 다름에 대해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주노동자들을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불성실하고, 지저분하고, 무식하며,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심한 경우에는 마약이나 질병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범죄자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이 논문은 이런 우리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이 문화적 다문화 사회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먼저, 문화적 편견과 오해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는 사회윤리적 이슈들을 차별, 빈곤, 그리고 소외라는 관점에서 살피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기독교윤리의 우선적 과제를 다문화 사회를 위한 가치 형성에 두고 구체적으로 공생, 관용, 배려와 돌봄, 그리고 환대와 같은 가치나 덕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살피게 될 것이다.

7) G. Hofstede,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학지사, 1995), 168, 177.

8) 「한국일보」 2004년 10월 1일.

## II. 다문화 사회의 사회윤리 이슈들

### 1. 차별

세계인권선언(1948) 제2조에서는 모든 인간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상관없이 평등한 존재임을 선언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금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주여성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이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말미암아 차별 당하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종이나 출신국,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례가 2005년 32건에서 2010년 말에는 64건으로 2배가 늘었다.<sup>9)</sup>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07년 8월 보고서에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가 외국인과 혼혈인에 대해 매우 인종차별적이라고 지적할 정도가 되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고 단일민족 국가라는 표현도 자제하며, 초중등학교에서 타민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sup>10)</sup>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모든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흥미롭게도 같은 외국인이면서도 유럽이나 미국 이주자들에게는 특혜라 할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반면에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주자들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는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서구인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공포와 무시’의 대상이 된다. 서구인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아시아인이나

9) “국제결혼하면 나라 망한다”, 『국민일보』 2011년 7월 27일.

10) 김희수, 「기독교 윤리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2011), 146; 김효준, 「다문화 기독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41, (2011), 317.

아프리카인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는다. 말하자면, ‘황색 피부’를 가지고 있지만 ‘하얀 가면’을 쓰고 싶어 하는 심리이다.<sup>11)</sup>

첫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인권문제는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상습적 임금체불, 산업재해, 열악하고 차별적인 근로환경, 부당해고, 법적 지위의 미비에 따른 비인도적 단속과 강제추방,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별과 소외가 포함된다.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성희롱이나 성폭행의 문제까지 생겨나고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인종이나 민족에 따르는 인종차별만 아니라 빈곤국가 출신이라는 계급차별, 그리고 가부장적 한국문화로 인해 생기는 여성차별이라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오로지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 혹은 ‘언젠가 도망갈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가부장적 사고에 익숙한 한국인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온 소유물처럼 생각한다. 의사소통의 부족과 왜곡으로 인한 시댁과의 갈등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된다. 남편에 의한 학대와 유기, 노동의 강요, 가정폭력이 잦은 결과 이혼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전체 이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1.6%였던 것이 2006년에는 4.9%로 늘었다.<sup>12)</sup>

셋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집단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인권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년 통계를 보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자녀 가운데 10명 중 2명 정도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다고 한

11) 박홍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한들출판사, 2010), 188-189.

12) 한국염, 〈다문화 시대, 이주민의 인권과 기독교의 과제〉, 한국기독교학회, 『제38차 학회자료집』, (2009), 587.

다. 이는 일반 초등학생이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인 13.4%의 두 배나 되는 수치다.<sup>13)</sup> 따돌림 당하는 원인이 피부색이나 외모와 같은 인종적인 이유 때문이란 점에서 심각하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절대적으로 존엄하며, 국적·민족·인종·성별에 따른 어떤 형태의 차별도 금지된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 이주노동자는 비록 한국사회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수입된 노동력이라 하더라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임을 잊어선 안 된다. 칸트(I. Kant)의 주장대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적 자체이지 수단화되어서는 안 된다. 결혼이주여성 역시 매매혼적 배경으로 결혼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요 동일한 권리를 지닌 시민이다. 성서는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에 대한 학대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강조한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레 19:33~34)

그런데 인권은 윤리적 호소나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인권(human rights)은 법(rights)적 문제로서 그것이 실천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sup>14)</sup>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는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고용허가제’를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가 제정한 결혼이민자 지원종합대책(2006),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2007), 결혼중개업

13) 권수영,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기독교(목회)상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309.

14) M. Honecker, *Das Recht des Menschen* (Gütersloh, 1978), 96.



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이 본래 의도대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빈곤

우리사회에 이주해 온 노동자나 국제결혼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 고통 속에 있다. 2006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결혼가정의 52.9%가 최저 빈곤층으로 분류될 만큼 빈곤하다.<sup>15)</sup>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경제력이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다보니 이주여성들은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 외에도 농사일과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2006년에는 7,998명이었는데 2년 후 2008년에는 18,778명 그리고 2010년에는 ‘외국계 주민자녀’의 수가 121,9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6)</sup>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사교육비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에서 비싼 사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학습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모의 경제능력 부족 외에도 교육방치, 또래문화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습능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도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정의 불안정과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어떤 아이들은 비행과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국제결혼가정의 59.7%가 월 소득 200만원이 안된다. 그 결과 이들 가정의 학령기 아동의 83%만 정규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 취학률은 70%에 불

15) 한국염, 「다문화시대, 이주민의 인권과 기독교의 과제」, 588. 각주 23참조.

16) 오현선, “한국사회 이주민 2세의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한울출판사, 2010), 79.

과하다. 이는 일반가정의 고등학교 취학률 93%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sup>17)</sup> 다문화 가정 어린이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중퇴했으며,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및 중퇴자는 열 명 가운데 두 명이나 되었다.<sup>18)</sup> 학력사회인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낮은 취학률은 고스란히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하시는 분이다.(출 22:21~24) 거류민이나 고아,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일이라 하셨다. 추수 때에는 이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삭과 과일을 특별히 남겨둘 것을 강조했다.(신 24:20~21) 매 삼년 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레위인만 아니라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라 요구했다.(신 14:28) 가난한 사람의 급료를 제때 지불하고 안식일에는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했다.(신 5:14) 예수님 역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눅 6:20~25) 사도바울 역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과 돌봄을 강조했다.(고후 9:6~9; 갈 2:10) 그는 가난한 교회공동체를 위한 다른 지역 교회가 헌금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전 16:1; 고후 8:2~4) 애찬식 때에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비난했다.(고전 11:21~22)

그런데 오늘날 가난의 문제는 개인적 자선행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다. 특별히 지구화 경제가 진행되면서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 변두리지역이나,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주로 거주하는

17) “다문화 어린이 취학률 95%로 올리지”, 창간기획 5대 어젠다: 선진국 문턱, 이젠 넘자, 『중앙일보』(2010년 10월 7일).

18) 권수영,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기독(목회)상담」, 309-310.

농촌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차별이 심각하다. 그런 이유에서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가난의 문제는 개인적 자선 보다 사회구조적 정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 3. 소외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고통은 단지 사회정치적 차별이나 경제적 빈곤 문제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소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문화를 아무 두려움 없이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문화권’(cultural rights) 개념이 새롭게 강조된다.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1990) 제31조에서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을 보장하고, 그의 출신국과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 이주자들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고유의 종교예식을 거행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sup>19)</sup>

일반적으로, 문화권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차이로서의 문화권’으로서 문화적 차이를 보호하고 문화가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표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다른 하나는 ‘참여로서의 문화권’으로서 문화 향수에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권리다.<sup>20)</sup> 말하자면, 문화권이라 함은 다수자의 사용 언어나 주류 문화에 대해 소수자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소수자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19) 미셸린 이샤이,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도서출판 길, 2005), 465.

20) 박천웅, 『다문화교육의 탄생』(국경없는마을출판사, 2009), 311.

그리고 상이한 관습이나 생활방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교육의 평등, 그리고 문화 간·민족 간 소통의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sup>21)</sup>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공공도서관 서비스도 취약하여 외국어 도서관이 태부족이다. 간혹 지역사회 다문화축제가 열리고 이주민들에 의한 자국문화 공연과 자국음식 만들기가 있지만 이벤트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거류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면 거류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자인 그들이 주류 문화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III. 다문화 사회의 가치 형성과 기독교

#### 1. 공생 혹은 상생

다문화 사회란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가리킨다. 다양성에서 생겨나는 다름과 차이는 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건강함의 상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특히, 생태학적 시각에서 보면 종의 다양성은 단일성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다. 폐쇄적인 순혈주의는 생물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단일문화로 살아온 우리사회는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국제결혼이 한민족의 혈통과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 성서는 다양성의 산물이

21) 황정미,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담론 201』13(2), (2010), 97.

다. 성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형성된 문서들을 모은 것이다. 성서의 수많은 저지들은 각기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전제하고 있다. 그들이 영향 받은 문화는 고대 이스라엘은 물론 가나안, 앗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등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은 다문화 상황을 수용 하되 창조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다 보니 간혹 문화적 편견과 오해가 나타나고 지금의 문화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성서의 해석학적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성서는 다양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고유하며 다양하다. 이때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 축복과 기회의 요소가 된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오재식이 옹계 표현한 대로,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고국에서는 잊힌 존재이고, 새로 정착한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과 억압을 받기도 하지만, 이 두 사회의 문화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두 민족과 두 문화 사이에 만남의 장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sup>22)</sup> 다문화 사회에서는 인종과 문화가 다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차이와, 같은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다름을 통해 ‘관계적 인간상’을 실현하기에 좋다.<sup>23)</sup> 이주자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세계의 다양한 놀이문화, 종교문화, 그리고 생활문화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더 가치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문화가 낯선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얼마든지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리고 지구화 경제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22) 황홍렬, <다문화시대, 이주민의 인권과 기독교의 과제> 논찬문, 한국기독교교회회, 제38차 학회자료집(2009), 601 재인용.

23) 오현선, 「한국사회 이주민 2세의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 91.

향상시키는 중요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수입국 소비자들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될 때라야 수출도 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비단 기업만 아니라 외교나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배우는 일은 타문화 이해에 좋은 기회다. 특히,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 현실에서 이주민의 존재는 학생들이 쉽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없이 한국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늘어나는 농촌총각 문제를 생각할 때 국제 결혼 외에 달리 해결책이 있을까도 의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다문화 이론 중에서 동화주의(Assimilation)나 용광로(melting pot)이론 대신에 샐러드 그릇(salad bowl)이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4)</sup> 동화주의가 주류문화에로 일방적 동화를 강조하고, 용광로이론이 여러 문화를 하나의 용광로 안에 녹여내서 동질문화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반면 샐러드 그릇 이론은 상호공존에 기초한 문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2. 관용

일반적으로 관용이란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참고 수용해 줄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관용은 영어로 tolerance인데, 이것은 ‘참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tolerance’에서 온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나 판단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자신의 견해 또는 일반적인 방식이나 관점과 다른 것을 편견 없이 끈기 있게 참아 주는 것”을 뜻한다.<sup>25)</sup> 관용이란 내가 아닌 타자(他者)를 인정하고, 나의

24) 김효준, 「다문화 기독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318-319.

25) 헨드릭 빌렘 반 룬, 이해정 역, 『관용』 반 룬 전집3 (서해문집, 2005), 23-24.

가치관과 다른 상대의 가치(관)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다. 이질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너그러운 태도다. 그래서 관용적 사회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다. 흑백논리가 강하고 획일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관용의 덕은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정일이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면, 우리사회의 관용의 정도가 100점 만점에 30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sup>26)</sup>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해선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긍정하는 관용의 가치형성이 필요하다. 관용의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다. 왜냐하면, 타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타문화에 대한 편견은 대개 문화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며, 마침내 차별과 편견의 태도를 갖게 된다.<sup>27)</sup>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큰지 2002년 전국 대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 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문화에 있어 다름이란 좋고 나쁨이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임을 가르쳐야 한다. 문화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볼 때 문화적 차이를 틀린 것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문화이해에서만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를 구분하고 문화적 동화를 요구하게 된다.

26) 도정일, “관용의 체제로서의 문화”, 「경향신문」, 1998년 12월 1일자.

27) 박홍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한들출판사, 2010) 190.

28) 황홍렬, 〈다문화시대, 이주민의 인권과 기독교의 과제〉 논문문, 한국기독교학회, 제38차 학회자료집(2009) 599 (각주 2) 참조.

### 3. 배려와 돌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다. 그들은 체류허가문제로 공포심 속에 살아가며, 온갖 차별과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권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는 소수자이며, 경제적으로는 빈곤하고, 문화적으로는 소외되어 있다. 우리가 낯선 문화를 만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문화충격인데 여기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된다.<sup>29)</sup> 첫째, 의사소통의 불능으로 인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무기력함이다. 둘째, 일상생활이 변화하면서 모든 일이 부담스럽게 된다. 셋째, 낯선 환경 때문에 본국에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넷째, 이해력의 상실로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현실감의 상실이라는 고통이 따른다. 다섯째, 감정과 가치관의 혼동으로 말미암아 좌절감과 죄의식을 갖게 된다. 특히, 다문화 결손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피부색, 언어, 문화의 차이 외에도 부모의 이혼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돌봄과 배려를 필요로 한다.<sup>30)</sup>

성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약자보호법(레 25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추수 때에 가난한 이주자들을 위해 곡식이나 과일을 조금씩 남겨두라고 말한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29) 박천웅, 『다문화교육의 탄생』, 23-24.

30) 다문화 결손가정 자녀 수가 2004년에 500명 이던 것이, 2007년에는 1,000여 명으로, 2010년에는 1,500명을 넘어섰다. 다문화 가정 이혼건수가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결손 가정 자녀 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2011년 5월 21일.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레 19:9~10)

이주민에 대한 이런 배려와 돌봄의 정신은 구약성서 룻기에 잘 나타나 있다.<sup>31)</sup> 첫째, 룻기는 국제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며, 보아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동네사람들 역시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의 결혼을 격려하고 축복한다(룻 4:11~12). 둘째, 이주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룻 2:8)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여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돕는다. 셋째, 나그네보호법에 따라 이주자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한다. 보아스는 룻을 기업을 무를 대상으로 삼고 자신의 책무를 다한다.(룻 4:4)<sup>32)</sup> 넷째,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이 이방 여인을 성(性)적으로 괴롭히거나 착취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하여 배려한다.(룻 2:9) 다섯째, 이주자에게 축복해준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축복하고(룻 2:20), 보아스 역시 룻을 축복한다.(룻 2:12)

#### 4. 한대

일반적으로 이주민은 고향이나 조국을 떠남으로써 자신의 안전과 복리를 제공해 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된다. 고대사회에서 낯선 사람은 심지어 적으로까지 간주되었다. 사람들은 이방 나그네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마술적 힘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점차 여행이나 상거래를 위해 외지인과의 접촉이 필요했고, 더불어 이방 나그네의 체류권에 대한 인식도 발전하기 시작했다.<sup>33)</sup>

31) 한국염, 「다문화시대, 이주민의 인권과 기독교의 과제」, 593-597. 김영진, 「룻기와 다문화 사회」, 11-15.

32) 레비라토법에 따르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경우 죽은 형의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후손이 끊기지 않게 했다(신 25:5-10)

33) 조용훈, 「대전지역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현실과 지역교회의 과제에

일반적으로 정착사회보다는 유목사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가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된다. 히브리인 역시 자기 조상들이 유목민이었으며 이집트의 노예로, 그리고 40년 광야생활을 하던 나그네로, 나중에는 바벨론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경험 때문에 환대를 매우 강조한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써 복을 받았다.(창 18~19장)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조상들을 가리켜 ‘땅에서 길손과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묘사했다.(히 11:13) 신약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외국사람이나 나그네’(엡 2:19), 혹은 ‘거류민과 나그네’(벧전 2:11)로 이해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소아시아와 유럽의 도시들로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신구약 중간 시기에는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고향을 떠나 소아시아 지역에 이주자로서 살아야 했다.

히브리인들과 초대교인들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그네로 산 경험이 오래다. 일제 때에는 간도나 하와이로, 1970년대에는 광부와 간호사로 서독에, 그 후에는 중동근로자로,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거나 회사일로 외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환대를 신앙인의 덕목으로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롬 12:13) 실제로 교회역사를 보면 환대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중요 덕목으로 강조되었다.<sup>34)</sup> 4세기에 가이사라의 바실은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해 병원을 세웠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율에 따르면,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수도원의 정체성에 속했으며 수도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었다. 중세기에 교회 감독들의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다. 16세기에는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8집, (2004), 337.

34) 조용훈, 「대전지역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현실과 지역교회의 과제에 관한 연구」, 338-339.

많은 개신교도들이 신앙적 이유에서 종교적 난민이 되던 시대였기에 환대는 여전히 중요시되었다.

헨리 나우엔(H. Nouwen)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친절한 환대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한다.<sup>35)</sup> 나그네에 대한 적대가 환대로 바뀌면 두려움 속에 있던 낮은 사람은 손님이 되어 뜻하지 않은 선물을 주인에게 내놓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인과 손님 사이의 구분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 말하자면, 환대는 주인과 손님 사이에 복음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창조한다.

#### IV.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지역교회의 과제

##### 1. 다문화 가정 사역과 지역교회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다문화 사역에 대한 지역교회의 관심과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이나 위성도시 교회,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늘고 있는 농어촌 지역교회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sup>36)</sup>

그런데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정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37)</sup> 첫째, 남편인 한국 남자는 다른 한국인

35) 헨리 나우엔, 이연희 역, 『발돋움하는 사람들』(성요셉출판사, 1988), 67-69.

36)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10%가 국제결혼에 의해 생긴 것이고, 농어촌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5-30%에 이른다고 한다. 김판임, 「예수와 다문화 가정」, 『성서마당』(2009/여름), 18.

37) 김판임, 「예수와 다문화 가정」, 19.

보다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떨어진다. 둘째, 아내 된 외국 여성은 경제력이 약한 나라 출신이 대부분이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적응도가 낮다. 이런 요인들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 안에 갈등이 심한 편이고, 그 결과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반면에 외국인과의 결혼한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 외에도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동거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다는 특징도 있다.<sup>38)</sup>

다행스럽게도 다문화 사역에 모범을 보이는 지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경없는마을’(박천웅 목사)이다. 국경없는마을은 1995년 경기도 안산 지역의 이주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의 고통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옹호하며 이주민들의 전통문화를 표현하도록 돕는 데 관심했다. 다음 단계로, 지역주민과 접촉점을 찾는 일에 관심하고, 이주민들도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사역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 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을 제안하고, 각종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다문화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국경없는마을은 기독교 단체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시민사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멀리 국제기구들 사이에도 잘 알려진 다문화 사역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39)</sup> 국경없는마을의 노력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은 우리나라 다문화마을 특구로 지정되었다. 원곡동은 인근에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노동자들이

38) 홍인중, 「성경이 말하는 다문화가정」, 『성서마당』(2009/여름), 32.

39) 박천웅, 『다문화교육의 탄생』 512-527; 박채란, 『국경 없는 마을』(서해문집, 2004).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안산시에 등록된 3만 5천여 명의 외국인 가운데 이곳에 등록된 외국인만 1만 6천명인데, 이 숫자는 원곡동 주민 4만 5천여 명 가운데 세 사람 당 한 명꼴로 외국인인 셈이다. 원곡동 거리에는 여러 나라 음식점과 다양한 국가의 고유 식재료를 판매하는 식품점이 즐비한데,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수도 200여 개나 된다. 한국어로 된 간판보다 중국어, 영어로 된 간판이 더 많으며, 은행에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직원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교회 가운데 다문화 사역에 관심하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위치한 상주교회(곽희주 목사)다. 상주교회는 2006년부터 상주외국인학교를 개설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문화사역을 하던 중,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2010년 5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지역민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베트남, 태국 등 10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식당 ‘행복 하우스’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복 하우스는 이주민들의 소득원이며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민에게는 외국의 낯선 문화와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sup>40)</sup>

## 2. 다문화교육과 지역교회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 그리고 종교에 기초해서 생겨나는 다양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문화적 차이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해

40) 곽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상주교회 다문화 목회를 위한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라 하겠다. 일찍이 유네스코는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적 장에 관련된 교육’ 권고문(1974)에서 인간존중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타문화 이해, 국제적 상호의존, 글로벌 이슈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런 배경에서 ‘유네스코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델뢰르 보고서’(Delors Report, 1999)를 통해서 평화교육,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교육을 강조했다.<sup>41)</sup> 유네스코의 다문화교육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sup>42)</sup> 첫째, 문화적 적합성과 상응성을 갖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 둘째, 적극적이고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문화적 지식, 갖추어야 할 태도 및 능력을 학습자 개개인 모두에게 가르치는 것. 셋째, 모든 학습자가 각 개인 간, 그리고 인종·사회·문화·종교 간, 그리고 국가 간의 이해와 존중,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지식과 태도 및 능력을 가르치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황정미는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육 대상 측면에서 이주민과 내국인에 대한 교육이 분리되어 있다. 다문화 교육이 주로 결혼이주여성 과 그 자녀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적 소수자만 아니라 다수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문화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나 사회적 함의가 약하다. 한국사회로의 동화교육은 물론 이주민의 문화만 생각하는 문화민족주의도 문제다. 오히려 내국인과 이주민이 만나는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제3의 문화에 관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민 문제를 보편적인 사회 소수자 문제와 연계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타인종,

41) 김광현, 「다문화 담론과 기독교 지식인의 책임」, 134.

42) 김광현, 「다문화 담론과 기독교 지식인의 책임」, 136-137.

타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배타적 태도를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sup>43)</sup>

이런 문제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지역교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우리나라 문화로의 동화가 아니라 이주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이주자의 다중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여기서 다중정체성이란 이주자들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와 다른 개인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큰 사회구조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평등한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다중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오현선은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한다.<sup>44)</sup> 첫째, 다인종성과 다문화성이 인간의 보편적 특성 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 둘째, 이주민 2세와 한국사회 구성원을 함께 교육하는 것. 셋째, 개인의 다중정체성을 명료화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교육.

다음으로, 교회의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이주민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가 이주자의 적응이나 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선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수자인 한국인들로 하여금 우월의식이나 시혜적 태도를 버리고 평등한 존재들로서 사회적 소수인 이주민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도록 의식화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나 시댁 어른들을 대상으로 타문화를 이해하고, 가부장적 사고를 극복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

43) 황정미,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117-118.

44) 오현선, 「한국사회 이주민 2세의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 91-94.

마지막으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회교육이다.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간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타적 특성을 가진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인구가 늘면서 점차 갈등이 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늘고 있는 이주민 가운데에는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 한 자료를 보면, 국내 무슬림이 약 13만 정도인데 계속 느는 추세라고 한다.<sup>45)</sup> 현재 주류종교인 기독교와 이들 이슬람종교가 충돌하고 갈등하게 될 때 한국 사회의 통합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다문화 사회(혹은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적 관용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선교방식 대신 돌봄과 섬김을 통한 선교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경제와 사회, 문화가 지구화되는 시대에 다문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실이다. 오래도록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위기이며 동시에 기회다.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와의 만남은 사람들을 불편하고 거북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갈등과 분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다. 하지만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회다.

다문화 사역이란, 문화적 소수자인 이주민을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시키거나 동화시키는 과정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를 긍정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낯선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가는 생산적인 과정이다. 이 일은 국가가 법이나

45) “당신의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는 ‘제로’입니까?”, 「서울신문」 2011년 7월 26일.



제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수사나 사회운동의 구호로 머물지 않기 위해 학교나 각종 사회단체, 무엇보다 지역교회의 실천적 역할이 필요하다. 지역교회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교적 관심 속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애쓸 때 비로소 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희주. 「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 가족을 세우는 목회사역에 관한 연구: 상주교회 다문화 목회를 위한 설교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광현. 「다문화 담론과 기독교 지식인의 책임」.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 김영진. 「룻기와 다문화 사회」. 『성서마당』, 2009.
- 김관임. 「예수와 다문화 가정」. 『성서마당』, 2009. 여름.
- 김효준. 「다문화 기독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41, 2011.
- 김희수. 「기독교 윤리적 과제로서의 다문화 수용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21집, 2011.
- 권수영.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기독교(목회)상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7, 2010.
- 미셸린 이사이.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05.
- 박채란. 『국경 없는 마을』. 서해문집, 2004.
- 박천용. 『다문화교육의 탄생』. 국경없는마을출판사, 2009.
- 박홍순.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대학생 선교」.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 한들출판사, 2010.
- 오현선. 「한국사회 이주민 2세의 다중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강성열 외. 『다문화 사회와 한국교회』. 한들출판사, 2010.
- 이장형. 「다문화 사회의 갈등분석과 통관문화적 언어소통 모델개발」.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 제임스 스티바. 배석원 역. 『윤리학에 대한 3가지 도전』. 서광사, 2001.
- 조용훈. 「대전지역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사회현실과 지역교회의 과제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8집, 2004.
- 한국염. 「다문화시대, 이주민의 인권과 기독교의 과제」. 한국기독교학회. 『제38차 학회자료집』, 2009.
- 황정미.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담론 201』 13, 2, 2010.
- 황홍렬. 「다문화시대, 이주민의 인권과 기독교의 과제」. 논찬문. 한국기독교학회. 『제38차 학회자료집』, 2009.
- 홍인중. 「성경이 말하는 다문화가정」. 『성서마당』, 2009. 여름.

- 헨드릭 빌렘 반 룬. 이혜정 역. 『관용』 반 룬 전집 3. 서해문집, 2005.  
헨리 나우엔. 이연희 역. 『발돋움하는 사람들』. 성요셉출판사, 1988.  
G. Hofstede. 차재호 · 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M. Honecker, *Das Recht des Menschen*. Gütersloh, 1978.

논문투고일: 2011. 10. 10

심사개시일: 2011. 11. 18

게재확정일: 2011. 12. 17

---

• 국 문 초 록 •

---

우리사회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순혈주의 문화 속에서 지내다보니 이러한 변화가 낯설고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생겨나는 사회윤리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하는 현실에서 생기는 문제들에는 차별, 빈곤 그리고 소외가 포함된다. 첫째, 피부색이나 출신국, 경제적 형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생겼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인종차별, 계급차별 외에도 성차별까지 경험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다수의 다문화가정에서 빈곤은 대물림되고 있다. 셋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문화적 소외와 배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윤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독교의 우선적 과제는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윤리적 가치를 함양하는 일이다. 먼저, 공생과 상생의 가치를 형성해야 한다. 다양성을 축복으로 알아 다문화상황을 국제 경쟁력의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된다. 둘째, 관용의 가치로서, 문화에서 다름이란 좋고 나쁨이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는 다름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배려와 돌봄의 가치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히 관심하신 분이며, 교회는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다. 마지막으로, 환대의 가치다. 흔히 낯설음은 적대감으로 변하기 쉬운데, 우리는 두려움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기독교윤리의 또 다른 과제는 지역교회가 다문화 사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지역교회의 다문화사역 가운데 안산의 ‘국경없는마을(박천웅 목사)이나 상주교회(곽희주 목사)는 좋은 사례가 된다. 둘째, 다문화교육으로서 지역교회는 이주민만 아니라 원주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교육목표는 이주민의 다중 정체성 형성과 원주민의 다문화가치 함양에 두어야 한다.

**주제어:** 다문화 사회, 사회갈등, 차별, 빈곤, 소외, 다문화가치, 다양성, 돌봄, 환대

---